

AUTHOR 양승달

TITLE 종교개혁의 16세기 싹

IN 고신대학교

14호 (10, 1975): 14-17.

아니라 신지어 그 임무를 다하지 못
는 통치자에게까지도 그 권위에 복종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Ibid, II, 20 : 25).
그 이유는 자들이 사민의 안경을 유지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
았거나 아니면 인민의 불의를 경멸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Ibid, IV, 20 : 25). 국가의 통치자의 명
령에 복종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
고 있다.

첫째, 권두됨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신이 통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불의한 통치자라도 반항하지
않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나머지
그가 세우신 자상의 통치자에게 복
종을 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을 좋게
히거나 사람이 두려워서 그 명령에 복
종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노임개하는 것
과가 된다.

둘째, 우리를 통치하는 자(權)에 대
하여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국민
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
남의 권력에 처한 가능하다. 만일 국
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
것을 명령하거나 복종할 것을 강요할
때 우리는 주지없이 그 명령에 복종하
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따라서 하
남을 반항하는 통치자는 결국 망할 수
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통치자

의 권위를 회수하여 가질 것이 분명하
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왕의
불경(不敬)한 명령에 복종할 것을 거부
하였지만 그는 왕앞에서 자신의 무죄함
과 왕에 대하여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하였다 (다6 : 22).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느부갓네살왕
이 사람에게 대하여 해를 끼쳤을 뿐
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
로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였기
 때문이다(Ibid, II, 20:30~32). 칼빈은
여기서 통치자가 가지는 권위의 이중적
인 성질에 대하여 명백한 개념을 표시
하고 있다. 즉,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
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神)

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은 그 권위에 복
종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통치
자가 소유하는 권위는 신적인 것이며
사람에 의하여 거부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한편 이 권위는 자신이 제위한 것
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기 때문에 이 권위의 부여되지 않는 하
남의 뜻에 순복해야 하며 그 뜻을 성실하
게 받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 권위를 행
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회수하여
가질 것이고 우리도 그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한마디로 말해서 권두됨이 건본
주의(敎本主義)의 입장에서 서서 하나님
의 권위만을 절대시하였으며 모든 인간
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의와 올바른
관계에서만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
백히 하였다. <*본대하 부교수>



종교개혁과 16세기의 설교

양 승 달*

종교개혁의 종교개혁과 설교는 밀
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종교개혁
의 위대한 사건과 성취는 넓은 의
미로 설교자와 설교가 만든 사건이
며 성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랑하
고 가르쳤던 열심있는 설교자들의 설
교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두를 세례를 밝혀 좋은 종교개
혁은 설교 자체의 재생이며, 설교에
세정신(New spirit), 새능력(New
power), 새형태(New forms)를 제
시했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설교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물론 이
것은 근본적으로 설교의 설교에
용될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강단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다.

종교개혁은 설교사(the history
of preaching)에 있어서 새로운 기
원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설교의 성격이나 설교의 영속적인
절기에 있어서 12세기와 13세기의
로마 카톨릭과 16세기의 종교개혁
자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
다.

이 문제에 관하여 Christlieb는
"종교개혁 시대는 설교의 내용
(Content), 형태(forms), 정신
(spirit), 성질(character)에 관한
설교의 역사적 발전에 날카로운 전
환점을 이루었다"라고 말했다(Art,
in Herzog, Bd. 18).

설교의 이러한 성질은 설교자
자들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잘 알
려졌다. 이점에 대하여 Broadus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했다.

종교개혁은

① 설교의 부흥
(a revival of preaching)

② 성경적 설교의 부흥
(a revival of Biblical
preaching)

③ 논쟁적 설교의 부흥
(a revival of contro
versial preaching)

④ 은혜부리에 대한 설교의
부흥
(a revival of preaching
upon the doctrines of
grace)(Broadus Lectures
on the history of preac-
hing p 113ff)

I. 시지대에 대한 개혁실교의 빛

종교개혁은 15세기와 16세기의 자령인 서구 기독교문명에 전진적인 운동의 한 부분이다. 그때 기독교 세계는 중세대적인 정신에서 벗어났다.

15세기와 16세기는 철학과 소망이 섞인 시대였다. 과학과 항해술의 발전은 인간 사상을 크게 확대시켰고, 전쟁의 새로운 방법은 정치적인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인쇄술은 세시대의 문화를 소개했고 그 전연구의 무용을 가져왔고 예술의 새로운 단행은 고상한 문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시대는 그들 인간의 정신적인 에너지들을 소생시켰다.

실교 역사도 인간의 정신적 힘을 소생시키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실교는 근본적으로 지적인 실천이며 문화세력 중의 하나이다. 실교는 사회세계에 그러한 생명의 새기움을 불어 넣음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시대의 실교자들은 그러한 책임을 이행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전시대 강단사역과는 현저하게 대조적으로 실교에 지적요소가 있었고 참신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일반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실교의 역할은 대단했다. 그 시대 봉건제도(Feudalism)는 제 칼질을 몇테로 가고 있

어 도시계급들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서서히 일반 백성들은 눈을 뜨기 시작했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일반 백성의 권리를 들고 인격하게 되었다. 백성들의 권리에 대한 경망하고 이성적인 주장으로서의 농민전쟁(the peasant's war)은 이 방향에 있어서 여러가지 포지티브의 하나이다.

대중적인 실교와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용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위대한 휴머니티(Humanity)의 인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Luther 자신은 농민의 아들이지만 농민전쟁을 찬성하지는 아니했다. 그러나 그는 농민들에 대한 동정심을 결코 버리지 아니했다. 모든 시대의 강단은 백성들 편에서 사회와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백성들의 권리와 특권의 확장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종교개혁 기간에도 이 역할은 무시되지 아니했다.

II. 기독교 예배와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실교의 강조

종교개혁 시대는 실교를 강조했다. 종교개혁 시대처럼 실교를 강조한 시대는 그전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타락한 시대는 실교가 실교자들로부터 무시되었다는 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알게

된다. 수도승을 위한 실교 순서는 실교의 무시에 대한 무언의 항거이지만 그들 수도승 역시도 타락해 버렸다. wiclif의 "불쌍한 승려들"(poor priests)은 실교를 무시하는 데만한 승려들에 대한 비난이다. 그러나 실교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열심은 놀라울 정도였다. Luther와 Calvin, Knox는 모두가 열심있는 실교를 통한 개혁이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들이 타락중에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실교였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실교하는데 비쳤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실어로써 충분히 알 수 있다.

1515년 Luther가 로마교의 승려로 있을 때는 마치 못해서 실교했다. 교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못해서 실교했다. 그러나 Luther가 실교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고 자기 속에 있는 양변가로서의 권정을 깨달았을 때는 하루 4번씩 실교했다. 종교개혁자로서의 Luther의 특징은 실교였다고 말할 수가 있다.

1529년엔 한주일에 3번 내지 4번씩 실교했다(Nebe: zur Geschicthe der predigt, Bd. II., s. 1. 5).

1541년엔 주일에는 4번씩 한주일에 2번 내지 3번, 그리고 공휴일에는 2번씩 실교했다. Calvin의 실교의 범위는 우리를 놀라게 만든다. 그가 Geneva에서 수백명의 학

생(예대로 800명의 학생)에 강의하고 Switzerland, France, the Netherlands, England, Scotland에 온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는 거의 매일 실교했다.

그는 구약 신명기에 관해 200번이나 실교했다. 어떤 때는 4일 내지 5일씩 계속 실교를 했다(Broadus; Leetwre on the history of preaching, pp 121~).

zürch의 개혁자들도 실교에 게으르지 아니했다. zwingli는 각주 실교했고 Ballinger는 한주일에 6번 내지 7번씩 실교했다. England에 있어서도 "실교하지 않는 성직자들"(unpreaching prelates)은 개혁자들로부터 비난받을 대상들이었다. Latiner는 그의 유명한 "쟁기의 실교"(sermon of the plough)에서 실교하지 않는 성직자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다.

Hooper, Coverdale, Tewel, 그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역의 한 부분이 실교가운데 중성하는 것이었다. Scotland에 있어서도 Knox와 동료 주제자들은 실교하는데 많은 정력을 쏟았다. 근세 종교개혁자들에 있어서 실교는 공동에배에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로마 카톨릭 예배의식은 실교에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미사(the mass)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런대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의식에서 미사를 폐지하고 성격해석이 중심점이 되었다. 성찬식은 주기적으로 행했지만 예배시간에다 행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설교가 점점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

Nebe는 Luther에 관하여 말 할 때는 특별히 Luther의 설교에 관하여 말했다. Luther는 설교를 인간 수사적인 사역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the exposition of the word of God)으로 봤다고 말했다. Luther는 그의 Table talk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나 또는 성경을 읽기 위해 강단에 올라갈 때는 나의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뒤는 저자의 pen이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동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이나 이해에 따라 하나님의 부분과 인간의 부분을 분리시켜서는 안된다. 그와 같이 들는 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는 사람이 말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한다”. 설교는 설교자 인간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게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설교에 대한 이런 논교 바른 견해가 세상에 알려졌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Luther는 설교자들을 단순하고 소박한 표현으로 표현하여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설교자는 논리학자(logician), 수사학자(rhetorician)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레아만 성경을 카트릴 수가 있고 논제할 수가 있다. Luther는 설교방법에 대하여서도 언급했다. 어떤 문제를 설교하기 위해 취할 때,

첫째로, 그 문제를 구별하고 둘째로, 그 문제를 정의하고, 서술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셋째로, 성경구절을 제시하여 그 것을 증명하고,

네째로, 예인들이 그것을 설명하여 선명하게 하고,

다섯째로, 유사한 것으로서 그것을 잘 정지하고,

마지막으로, 청중을 흔게 하도록 그 모든 것을 일으켜 주고 모든 거짓고리를 쇠망해야 한다.

(Broadus; lecture on the history of preaching 188, 193, 194).



- ◇..... 이 족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족음과.....
- ◇..... 대처되는 생이란 도 무엇일까? 이러한 문체를.....
- ◇.....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인간의 신비적인 이상의.....
- ◇..... 세계로 도피해 버리고 싶어진다.....

『미래학(未來學)』의 허구성

조성관*

내일의 세계를 향한 「미래학(未來學)」은 산香山健一은 현재 일본 학승인 대학 법학부 조교수로 있는 젊은 학자이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세계를 예측하여 이 글을 썼다. 미래학 조작 가능한 것이며 그러기에 이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내일의 인류에 대하여 생각한다. 인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버리는 것인가? 인류사상 최후의 인간이 무엇 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둘 것인가? 순간. 그런 순간을 미리 어떻게 상상한다. 그 때에 이 최후의 인간(인류사의 최후의 목격자)의 '외태'에 도대체 무엇이 오고 가게 될 것인가? 이 최후의 인간이 인류의 일생을 되돌아 보코, 것은 민족의 미소와 더불어 눈물 감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인류는 살아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

기 위하여 우리는 비가역적(非可逆的)인 시간의 흐름속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진실로 어울리는 미래를 계속 창조해 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광신(狂信) —광신은 유대인과의 독교도의 발명이었다— 이 사회변혁의 도구로써 사용될 시대는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신하는 새로운 도구를 발명해야 한다고 한다.¹⁾ 앞서도 말했듯이 그는 인류최후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막연한 낙관적인 유토피아 상상을 반대한다. 오히려 버틀러(S. Butler, 1835—1902)의 에리헨(Erewhon-Nowhere를 지꾸로한 글자, 즉 유토피아의 반대의 뜻인. 사실은 Erewhon이 어야 옳을것임) 죽을 인 용하여 디스트피아의 시대가 올 것을 경고한다. 그러기에 새로운 유

1) 香山健一, 未來學, 쇠림역, 서울: 현안사, 1970, p. 77